

## 4년제 대졸자의 복수전공 이수율과 첫 일자리 성과

- 2016년 기준 4년제 대졸자 중 약 19.5%가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있으며, 주전공계열별로 인문계열 42.6%, 비상경제열 23.6%, 상경제열 19.3% 순으로 나타남.
- 타전공에 비해 상경제열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상경제열 전공이 취업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임.
- 인문계열 및 비상경제열 학생이 상경제열로 복수전공을 할 경우 첫 직장에 취업할 확률을 높이지만, 상경제열 학생의 복수전공 이수는 취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학 및 자연계열 학생이 상경제열로 복수전공을 할 경우 첫 직장 취업 확률을 높일 수 있으며, 자연계열의 경우 인문계열 복수전공 이수가 첫 직장 취업 확률보다는 취업의 질(정규직 여부, 월평균 임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주

이 글은 '윤혜준 외(2018), 『OECD 교육성과 지표(INES LSO) 네트 워크 사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일부를 발췌, 재구성함.

###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대졸자의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스펙 쌓기' 요인 중 하나로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복수전공을 선택하는 비중이 증가함.
  - 학생의 관점에서는 복수전공을 통해 진로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즐거움과 같은 무형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에 남들과 구별되는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였다는 신호를 준다는 기대감으로 복수전공 선택의 유인이 작용함.
- 채용 시 전공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기업이 증가하고 취업 성과에 대한 실증 결과 또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복수전공 이수가 실제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분명하지 않음.
- 4년제 대졸자의 전공계열별 복수전공 이수 현황을 살펴보고, 취업 성과에 있어 주전공에 따라 복수전공계열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함.

분석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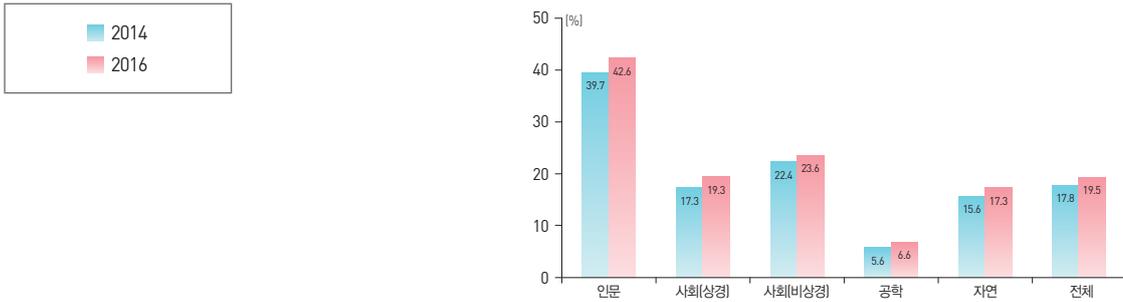
- 분석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4~2016년 조사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1차년도 자료를 분석
  - 모집단은 2013년 8월부터 2016년 2월 졸업생 중 4년제 대학 졸업생이며, 조사 시점은 졸업연도 다음 해 9월임.
- 분석 대상: 4년제 대학 졸업생 중 인문, 사회과학, 공학, 자연계열 전공자 30,36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가중치를 적용함.



02 전공계열별 복수전공 이수 현황

4년제 대졸자의 19.5%가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있으며, 이는 전공계열별로 다르게 나타남.

- 2014년과 2016년 자료를 비교한 결과, 복수전공 이수 비율은 2014년에 17.8%에서 2016년 19.5%로 소폭 증가함.
- 모든 전공계열에서 2014년에 비해 2016년에 복수전공 이수 비율이 증가하였고, 인문계열의 경우 2014년 39.7%에서 2016년 42.6%로 가장 높은 상승 폭(2.9%p)을 보임.



[그림 1] 전공계열별 복수전공 이수 비중

복수전공 이수자 중에서 상경계열 복수전공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음.

- 인문계열 졸업생 중 약 42.5%가 상경계열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하였으며, 상경계열과 비상경계열에서 상경계열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하는 비중이 각각 50.8%, 33.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또한 각각 31.0%와 36.5%의 학생이 주전공과 이질적인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복수전공으로 상경계열을 선택하고 있음.
- 많은 학생이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복수전공을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상경계열 복수전공이 취업에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임.

<표 1> 주전공별 복수전공 계열 선택 현황

(단위: 명(%))

주전공 \ 복수전공	인문	사회(상경)	사회(비상경)	공학	자연
인문	524 (25.7)	158 (25.0)	243 (23.9)	51 (7.5)	101 (9.7)
사회(상경)	866 (42.5)	321 (50.8)	341 (33.5)	212 (31.0)	380 (36.5)
사회(비상경)	457 (22.5)	88 (13.9)	328 (32.3)	52 (7.6)	85 (8.1)
교육	78 (3.9)	12 (1.8)	44 (4.3)	23 (3.4)	34 (3.3)
공학	28 (1.4)	24 (3.8)	19 (1.9)	260 (38.0)	133 (12.8)
자연	41 (2.0)	21 (3.3)	20 (2.0)	63 (9.2)	287 (27.5)
의약	1 (0.1)	-	4 (0.4)	1 (0.2)	6 (0.6)
예체능	41 (2.0)	9 (1.4)	17 (1.7)	21 (3.1)	17 (1.7)
전체	2,037 (100)	632 (100)	1,017 (100)	684 (100)	1,043 (100)

03 복수전공과 첫 일자리의 노동시장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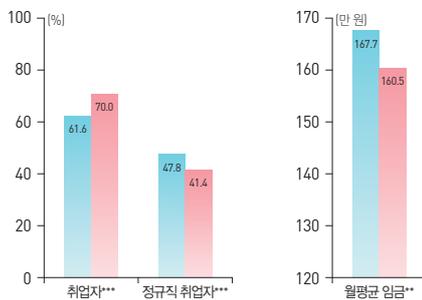
복수전공자는 단일전공자보다 첫 일자리 취업률은 높지만, 취업의 질로 대변되는 정규직 취업과 월평균 임금은 낮게 나타남.

- 복수전공을 이수한 경우 첫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복수전공자의 70.0%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단일전공자(61.6%)에 비해 약 8%p 높은 수준임.

- 정규직 취업 비중과 월평균 임금의 경우 단일전공자가 복수전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단일전공자의 정규직 취업률은 47.8%로 복수전공자(41.4%)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임금 또한 단일전공자(167.7만 원)가 복수전공자(160.5만 원)에 비해 높은 수준임.



주 |  
\*\*\* p<0.001, \*\* p<0.05



[그림 2] 복수전공 이수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대학 재학 기간 동안의 교과 및 비교과 활동 변수를 고려한 결과, 복수전공 이수는 취업할 확률을 높이지만, 정규직 취업이나 월평균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개인특성과 졸업 평점, 어학연수 경험, 교육 및 훈련 경험, 자격증 취득 등을 통제 후 분석한 결과, 복수전공 이수자의 취업 확률이 단일전공 이수자보다 약 5.7% 더 높게 나타남.
- 그러나 복수전공 이수가 첫 직장이 정규직일 확률이나 월평균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표 2> 복수전공 이수 여부가 첫 직장 취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주 |  
1) \*\*\* p<0.001  
2) 괄호 안은 강건한 표준오차 (robust standard errors)를 의미  
3) 취업 여부와 정규직 여부의 추정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s)임.  
4) 고등학교 계열(특목고 더미), 전형방법(편입학 더미), 모집방법(수시모집 더미), 대학 소재지(서울권 더미), 전공계열, 졸업연도 등은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취업 여부	정규직 여부	로그 월평균 임금
복수전공자	0.057*** (0.011)	-0.010 (0.015)	0.007 (0.015)
졸업 평점	-0.145*** (0.010)	-0.002 (0.012)	0.007 (0.013)
어학연수 경험	0.056*** (0.012)	0.024 (0.015)	0.079*** (0.016)
교육 및 훈련 경험	0.177*** (0.013)	0.027 (0.014)	0.029 (0.015)
자격증 취득	0.113*** (0.008)	-0.022 (0.01)	0.014 (0.012)
성별: 남성	-0.060*** (0.010)	0.065*** (0.013)	0.144*** (0.014)
연령	0.003 (0.002)	0.015*** (0.003)	0.020*** (0.003)
N	13,045	7,844	7,907

인문계열 학생의 경우 상경계열로의 복수전공을 통해 취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인문계열을 주전공으로 하고 상경계열을 복수전공하는 학생은 단일전공자보다 첫 직장 취업 성과가 높게 나타남.
- 인문계열 전공자가 교육계열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한 경우 단일전공보다 첫 직장이 정규직일 확률을 낮추고, 공학이나 자연계열 복수전공의 영향력은 취업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그 효과가 미미함.

상경계열 학생의 복수전공 효과는 없지만, 비상경계열의 경우 사회계열로 복수전공을 한 경우 첫 직장 취업 확률을 높임.

- 상경계열 전공자의 경우 단일전공에 비해 복수전공 이수가 취업 및 정규직 취업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비상경계열 및 공학계열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한 경우 월평균 임금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비상경계열 전공자가 사회계열 내 타 전공을 복수전공한 경우 비상경계열만을 복수전공한 경우에 비해 첫 직장에 취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인문계열로의 복수전공은 월평균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공학 및 자연계열→인문사회계열 복수전공 이수는 융·복합적 인적 자원의 형성으로 취업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음.

- 공학계열의 경우 단일전공자에 비해 상경계열 복수전공자의 첫 직장 취업 확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정규직 여부나 월 평균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자연계열 주전공자가 상경계열이나 인문계열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할 경우 단일전공자보다 취업 성과가 높게 나타남.
- 인문사회계열과 달리 공학 및 자연계열에서 이질적인 분야로의 복수전공이 첫 직장 취업 성과에 효과적일 수 있음.

〈표 3〉 주전공계열별 복수전공계열이 첫 직장 취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취업 여부	정규직 여부	로그 월평균 임금
인문 계열	인문	0.043	-0.044	0.027
	사회(상경)	0.129***	0.103***	0.184***
	사회(비상경)	-0.050	-0.057	-0.011
	교육	0.054	-0.274**	-0.078
	공학	-0.111	-0.139	0.128
사회 (상경) 계열	자연	-0.102	-	-0.307*
	인문	0.049	-0.085	-0.037
	사회(상경)	0.056	-0.059	-0.059
	사회(비상경)	-0.002	-0.011	-0.180**
	교육	-	-0.105	0.012
사회 (비상경) 계열	공학	-0.146	0.049	-0.483**
	자연	-0.106	0.135	0.074
	인문	0.091*	-0.027	-0.148***
	사회(상경)	0.086**	-0.065	0.014
	사회(비상경)	0.118**	-0.084	-0.086
공학 계열	교육	0.062	-0.065	-0.089
	공학	0.168	-0.387	-0.297*
	자연	-0.129	-0.148	-0.096
	인문	0.162	0.155	-0.099
	사회(상경)	0.152**	-0.009	0.058
자연 계열	사회(비상경)	0.060	-0.096	-0.021
	교육	0.359	-0.157	0.201
	공학	-0.012	0.002	-0.044
	자연	-0.055	-0.218	-0.079
	인문	0.104	0.191**	0.152*
자연 계열	사회(상경)	0.117***	-0.019	-0.001
	사회(비상경)	-0.047	0.117	0.128
	교육	0.002	-0.276	-0.030
	공학	-0.108*	0.056	-0.042
	자연	0.095**	0.078	0.013

주 |

- 1) \*\*\* p<0.001, \*\* p<0.05, \* p<0.10
- 2) 취업 여부와 정규직 여부의 추정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s)임.
- 3) 고등학교 계열(특목고 더미), 전형방법(편입학 더미), 모집 방법(수시모집 더미), 대학 소재지(서울권 더미), 전공 계열, 졸업연도 등은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 4) 기준 변수는 단일전공자이고, 전공계열별로 따로 분석하였으나 표기의 편의를 위해 한 표에 결과 값을 제시함.
- 5) 의약계열 및 예체능계열 복수 전공의 경우 해당 표본의 개수가 적어, 그 값이 계산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함.

04 시사점

- 취업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인문계열 학생들의 경우 상경계열 복수전공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주전공 및 복수전공계열에 따라 복수전공 이수가 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주전공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취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함.
- 취업 전망이 밝다는 이유로 복수전공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주전공을 기반으로 적성과 흥미를 살려 취업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복수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복수전공 제도 운용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학업상담 등을 통해 진로에 맞는 보완적인 전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비인기 전공에 대한 복수전공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다양한 전공 경험을 통한 융·복합적인 인적 자원 축적으로 미래 노동시장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함.

백 원 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